



남농 허건의 청강일도.

저물어가는 가을, 겨울, 그리고 봄

故 무초 진기풍 선생 기증 작품전
고창군립미술관서 내년 5월까지

고창군립미술관에서 故 무초 진기풍 선생의 기증작품 중 산수화전이 개최되고 있다. 군립미술관 개관 이후 7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17년 11월 28일 작고한 무초 진기풍 선생의 1주기 기념전으로 마련됐다. 2019년 5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전시회에서는 진기풍 선생이 기증한 작품 중 대표작 '우기 8'과 13점의 산수화를 중심으로 저물어가는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선생의 마음을 담아낸다. 故 진기풍 선생은 1925년 고창군 무장면에서 태어나 전북일보 편집국장·사장, 서해방송 부사장을 역임했다.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온 참 언론인이자, (후)백양감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 책임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지속적인 사회활동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힘쓴 전북의 큰 어른이었다.

문화적으로도 강암 송성용 선생의 뜻을 받들어 서예를 학술적으로 진흥하고 서예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된 강암서예학술재단의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이렇듯 언론인이자 미술애호가로서 평생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자료를 2001년을 시작으로 고향인 고창군에 기증했고, 고창군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2001년 관소리박물관 2층에 무초회향미술실을 마련하여 작품을 전시하다가 2006년 관소리박물관 별관에 무초회향미술관(無初懷鄉美術館)을 확장 개관하여 기증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무초(無初)'는 진기풍 선생의 호이며, '무초회향(無初懷鄉)'은 선생이 고향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증 작품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도자기, 서각, 고서 등 143점에 달하며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강암 송성용(剛庵 宋成鏞), 소치 허련(小巖 許鍊), 남농 허건(南農 許健), 해강 김구진(海剛 金圭鎭), 특히 서양화가 진환 등 서예·미술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기증작품 중 '우기(牛記) 8'과

산수화를 전시하며 소정 변관식, 남농 허건, 현립 정승섭, 토립 김중현 작가 등의 산수화가 전시되어 감상할 수 있다. 이 중 진기풍 컬렉션 제1호에 해당하는 '우기(牛記) 8'은 망각 속에 묻혀 오다가 재평가된 진환(1913-1951)의 대표작으로 일제 식민치하에서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얼마 소와 아기 소를 그린 작품이다. 진환은 황색계열의 색채를 선호했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황토 흙을 직접 캔버스에 오브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부항하경(釜港夏景)은 소정 변관식(1899-1976)의 작품으로 부산항의 여름 풍경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수많은 붓 터치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소정 화법의 주요 특징으로 그의 예술적 장인 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소정은 관념적인 중국 산수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화법을 확립하여 한국 산전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창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산수화전 이후에도, 故 무초 진기풍 선생의 미술 애호정신과 고향 고창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새기는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공감예술문학SNS작가협회 이웃돕기성금 남원시에 전달

남원시는 공감예술문학SNS작가협회(회장 하태주)가 남원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공감예술문학SNS작가협회는 최근 남원시와 연계해 사회적 소외계층, 이웃돕기 행사를 겸한 공간 갤러리 전시회를 가진 바 있으며, 평소에도 남다른 모범심과 나눔정신으로 정평이 나있는 단체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동규 남원부시장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따뜻한 나눔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희망찬 남원시 만들기 앞장 서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감예술문학SNS작가협회가 남원지역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힐링 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모든 순간이 너였다'.

올 한 해 출판계 결산

문학의 몰락, 잡서의 득세

올 한 해 출판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위로'다. 힐링 에세이와 페미니즘 도서가 강세를 보인 반면, 소설 판매는 부진했다. 교보문고의 '2018년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및 결산 발표'(2018년 1월1일~12월2일)에 따르면, 힐링 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1위에 올랐다. 독자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책이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측은 "좀처럼 열리기 어렵다는 40대와 50대 남성들 지갑까지 열린 것은 '캐릭터가 귀여워서'라는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파국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베스트셀러 10위권 중 6종이 삶에 위로를 건네는 에세이였다. 하태일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2위), 정문정의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3위),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5위),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6위),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7위)가 주목받았다. 힐링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차트를 점령하면서 시·에세이 분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1.9% 상승했다. 반면 소설 분야는 2.0% 하락하면서 부진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한국 문학 열풍의 지운 이를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 소설(31.0%)의 판매가 한국 소설(29.9%)을 앞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해외 진출은 두드러진 한 없었다.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은 일본·영국·프랑스·스페인 등 16개국에 판권이 팔렸

다. 12월 초 일본에서 출간되며, 영국판은 세계적인 출판 그룹 사이먼&슈스터에서 나온다. 음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의 에세이 '반약은 없다'는 베트남에서 출간됐으며, 대만 독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정유정의 '종의 기원'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19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예스24 베스트셀러 차트(2018년 1월1일~11월30일)도 힐링 에세이가 독식하다시피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1위에 랭크됐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3위, '언어의 온도'가 5위에 올랐다. 올해 에세이 출간 종수는 2672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이 출간됐다. 인터파크도서에서도 베스트셀러 종합 1위(2018년 1월1일~11월30일)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다. 2위는 '모든 순간이 너였다', 3위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다. 문단의 성폭력 문제, '미투' 운동 등 페미니즘 관련 이슈가 더욱 거세지면서 페미니즘 도서가 각광받았다. '하용가' '그녀 이름은' '여자라서 행복하다는 거짓말' '같이 걸어도 나 혼자' 등 소설과 함께 '페미니즘의 방아쇠를 당기다'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과 같은 페미니즘 투쟁사를 기록한 도서도 나왔다. 페미니즘 열풍에 힘입어 '82년생 김지영'은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구입한 사람은 여성(77%)이 남성(23%)보다 훨씬 많았다. 40대(29%)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어 20대(25%), 30대(15%) 순이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